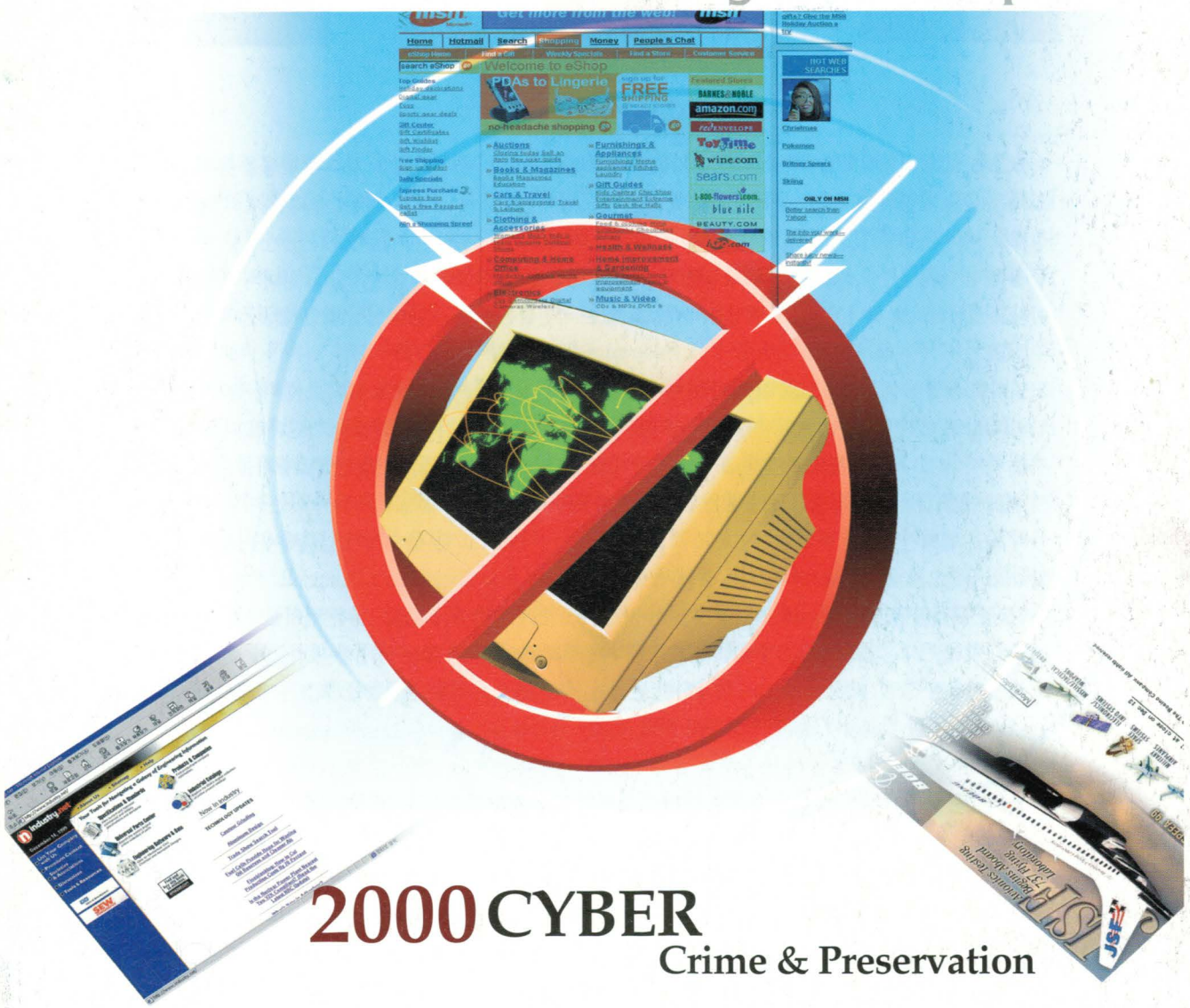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

Frontier

KAIST Management Update



2000 CYBER Crime & Preservation

CONTENTS

2 나침반
김성희 테크노경영대학원장

3 특별기고
장준봉 경향신문사 사장

4~5 테크노경영대학원 소식

6 이모저모

7 eBiz-Awards

8~9 특집
사이버 범죄

10~11 교수 칼럼 김병천 교수
(산업경영학과/경영공학전공 책임교수)

12 eBiz 교과목 개편 소개

13 eBiz 분야의 인력 동향

14 통신경영코너

15 DBM 코너

16 자격증 시대에...

17 신임 교원 소개
김상훈 교수

18 신규직원 소개

19 교수 연구실 소개
김영걸 교수 연구실

20 이웃을 돌아봅시다
샘터마을

21 비학위과정 근황

22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취업지원

23 MBA 입학안내

테크노경영대학원 계간지 Frontier
2000 AUTUMN Vol. 4, No. 4 (통권13호)
발행일 2000년 10월 1일
발행인 김성희
편집인 문송천
발행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TEL : (02) 958-3246
FAX : (02) 958-3010
디자인 경희디자인 (02) 2263-7534

홈페이지 http://kgsmweb.kaist.ac.kr

기업의 나침반으로서의 상아탑

김 성 희
테크노경영대학원장

요즈음 많은 경영대학원들은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많은 자각과 반성을 통해 다양한 교육은 물론 기존의 교육환경을 쇄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몇 일전 신문지상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커다랗게 난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전격적 파괴(?) 광고라든지, 기금모금운동관련한 마케팅 활동을 일반 대기업들이 하는 수준 이상으로 하는 등의 양상을 접하면서, 이제는 학교도 하나의 커다란 사업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나, 과연 그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지 궁금하기도 하다.

인터넷 사업의 대명사격으로 잘 알려진 아마존은 요즈음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불과 일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벤처투자캐피탈은 아마존이 막대한 마케팅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꺼린다면 더 이상의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할 정도로 강한 표현들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국민들은 TV 슈퍼볼 프로그램에서 30초에 500만 불이 지불되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의 광고들을 접하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요즈음의 많은 벤처기업들이 버블화 되어가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러한 인식팽배는 모든 벤처기업들을 거품으로 몰고 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을 꼽으라면, 많은 벤처들을 키워낸 스탠포드 대학을 든다. 그들은 신문지상 등에서 자청하는 광고 없이, 소리 없이 유명한 학자들을 길러냈고, 선도하는 기술과 경영기법들을 주야로 연구하며 만들어 냈다. 또한 이러한 산물들을 보고 주변에서 과감하게 기금을 시사하여 학교를 키울 수 있었다고 한다.

일전에 한창 IMF 환난시대로 어려운 시기에 경영학 교수들과 중소기업사장들이 많이 참가하는 모임에 간 적이 있다. 그 때 어떤 경영학교수가 여러 기업들의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발표 도중에 갑자기 어떤 중소기업사장이 얼굴을 붉히며, 손을 들고 말하기를 "그렇게 그 동안 잘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경영학 교수들 덕분에 우리 기업들은 IMF 등 환란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상당히 격앙된 어조로 비평을 했다. 순간 발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서먹해졌고, 잠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 때, 어떤 원로 경영학 교수가 "장기를 두다가 지면, 장기 둔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 훈수 둔 사람이 잘못한 것인가? "라고 말하여 가까스로 험악했던 분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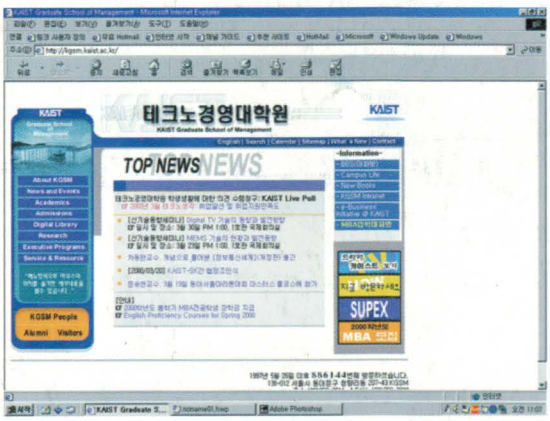
선두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를 근거로 이를 학습해 체계 있게 정리함으로서, 향후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계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경영학이라고도 볼 수 있다. 만약 기업과 학교가 각각의 우선순위적인 식견 없이, 학교가 기업의 하는 행태를 단순 모방만 하여 추구하게 된다면, 학교로서의 순수한 가치를 더 이상 발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명확한 학교 자신에 걸 맞는 나아갈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파악하여 발빠르게 제공하여야 할 근원적 책무가 있다. 더욱이 스티븐 코비 박사의 말대로 학교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 기업과는 달리, 시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나침반이 어떠한 외부 힘에 의한 회전 후에도 동서남북의 편차 없이 가리켜야 할 방향을 항상 가리키듯이... F

KAIST-MBA 로 유학오십시오

KAIST MBA는 기술과 경영이
접목된 세계수준의 MBA과정입니다.
21세기에는 일반경영관리자는 물론
기술, 지식, 정보통신, 신금융, 벤처, 환경분야 등과
연계된 Global Manager가 되어야 합니다.
MBA학위만이 목적이라면 KAIST MBA가 아니어도 좋고,
바다를 건너도 좋습니다.

KAIST에서 21세기를 준비하십시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http://kgsmweb.kaist.ac.kr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주소: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전화: (02)958-3211~6, 3246
팩스: (02)958-3220, 3230
Homepage: http://kgsmweb.kaist.ac.kr
E-mail: kgsmweb@kgsm.kaist.ac.kr

사이버 테러와 보안문제

장 준 봉
경향신문사 사장

Internet의 발달로 모든 통신과 거래가 신속하고 편리해 졌으나 해킹(Hacking)또는 사이버테러(Cyber-terrorism)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 과제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만 해도 지난 8월에 250곳의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이 무차별적으로 해킹이나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는 지난 '97년에 64건이 발생한 이래 '98년 158건, '99년 572건, 금년에 들어와 6월말까지 721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사이버테러 문제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Internet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하루 평균 80건 이상의 사이버테러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국방성의 컴퓨터마저 해킹 또는 테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최근에는 AOL, Yahoo, CNN, 아마존 등 세계적인 Internet기업의 웹사이트가 해커들의 계속된 공격을 받아 몇 시간씩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져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우리 나라에서도 최근 정보통신부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는 네티즌들의 공격을 받아 컴퓨터시설이 장시간 마비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

Hacker들은 Website의 Contents를 날려 버리거나 내용을 바꿔놓기도 하고 보안벽을 뚫고 들어가 핵심정보를 빼내 가기도 한다. Hacking 방법의 가장 전형적인 것은 지난 연말에 있었던 포항공대의 컴퓨터시스템에 대한 전자우편폭탄(E-Mail Bomb)세례와 금년 구정을 전후하여 유포되어 많은 PC를 다운시켰던 'I love you' 라는 컴퓨터 바이러스(Computer Virus)를 들 수 있다.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사이버테러는 단독범행 또는 조직화된 범죄집단에 의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테러의 목적은 개인의 경우 자기의 기술 수준을 테스트하거나 호기심 등 단순한 동기가 대부분이며 그밖에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해킹을 하는 등 불순한 경우도 있다.

집단에 의한 경우는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 또는 상대방의 사업방해 등을 들 수 있다. 군사시설, 핵발전소, 금융기관, 증권거래소, 항공기, 철도, 기타 주요 산업 및 전자상거래업체의 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이에 속한다. 컴퓨터의 기능을 마비시켜 혼란을 초래케 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사이버테러는 Internet을 이용한다는 점만 다를 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각종 범죄유형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이버테러가 날로 증가하고 그 피해가 크게 문제되자 세계 각국은 개별 또는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일본, 이태리와 러시아 등 G-8 그룹의 관계장관들이 Internet범죄에 관한 국제회의를 열고 공동대책을 논의한 것은 사이버테러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미국 FBI는 컴퓨터범죄수사대를 설치하여 각국의 인터폴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국방성은 사이버특수부대를 두어 정보전에 대비하고 있다. 미국은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연간 수 십억 달러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타 G-8 국가들과 그 밖의 주요국가들도 나름대로 테러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F

테크노경영대학원 2001학년도 입시 안내

11월 6일부터 MBA과정 원서교부 시작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지난 8, 9월에 거쳐 2001학년도 경영공학전공 석,박사과정 입학시험을 실시하여 석사 40명, 박사 14명의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하였다.

또한 오는 11월 6일부터 2001학년도 MBA과정 입학시험 원서가 교부되는데, 일반MBA과정인 테크노경영전공(Techno MBA)과 특화 MBA과정인 경영정보전공(MIS MBA), 금융공학전공(FE MBA), 통신경영정책전공(Telecom MBA), 환경경영정책전공(Green MBA) 등 5개 전공에서 모두 200명 내외의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특히 2001학년도부터 테크노경영전공에 eBusiness 집중분야가 도입된 것이 큰 변화 중의 하나인데, 지원자의 많은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자세한 교과목 및 입학전형 안내는 12면과 23면 참조).

테크노경영대학원은 http://kgsmweb.kaist.ac.kr 홈페이지에 입학대화방 게시판을 운영, 입학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질의 응답 및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문의: 02-958-3214, 3216).

정보통신 국제저널 한국 특집호 발간

국가별 특집은 최초,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차동완 교수 편집위원장 맡아

세계 정보통신분야 정상급 저널이 한국 특집호를 발간했다. 편집위원장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차동완 교수. Telecommunication Systems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국제 저널)는 한국의 정보통신연구를 다룬 최신 특집호(2000년 가을판)에서 350여 페이지에 걸쳐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연구논문을 게재했다. 이 저널은 네덜란드 정보통신 전문출판사 BALTZER Science Publishers에서 발간하는 계간지로 이 분야 최고 수준인 IEEE계열 학술지에 버금가는 국제 저널이다. 이번 한국 특집호 발간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저널에서 한 국가를 특집으로 다룬 점, 그리고 그 첫 케이스로 한국이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최신호에는 2년여에 걸쳐 엄선된 통신경영정책, 이동통신, 개인통신, 광대역통신 등 정보통신 전분야의 논문 20편이 수록돼 있다. 이중 국제적으로도 주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동통신 시스템인 CDMA에 대한 논문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들 논문은 약식 초고심사를 거친 37편의 정식 논문을 편당 3명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위원단이 엄선한 작품들이다. 전문 심사위원단은 부편집위원장 18명을 포함한 100여명 대부분이 외국 전문가였다.

이번 특집의 편집위원장을 맡은 차동완 교수는 한국통신학회 이사와 통신경영연구회 위원장, 한국경영과학회 회장을 역임한바 있으며,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경영과학회(INFORMS) 2000 대회장을 맡기도 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주)LG - EDS시스템

e비즈니스 공동연구 산학협정 및 포럼 개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과 (주)LG-EDS시스템은 7월 14일, e비즈니스 공동연구를 위한 산학협정식을 가졌다. 두 기관은 이번 협정을 계기로 향후 1년간 국내 기업인, 정책 입안자 및 일반 대중에게 21C 경영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고 있는 e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e비즈니스의 전략 및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솔루션 연구 등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 개최 및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 홍릉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열린 협정식에는, KAIST 최덕인 원장,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성희 대학원장, 한민희 부대학원장, LG-EDS시스템 오해진 대표이사, 윤철수 상무, 이동원 경영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8월 17일, 박성주, 이제호 교수가 "e비즈니스의 제2의 물결", "프로슈머"의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계속해서 매월 2회 정기적으로 회원들을 위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12월에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오픈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시아지역 유수 경영대학원과 협력 프로그램 추진

대만 National Chengchi 대학 College of Commerce와 협력 체결
NSFC, AIT 등에서도 테크노경영대학원에 협력제의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지난 7월 26일 대만 National Chengchi대학 College of Commerce와 석,박사 과정학생 및 교수교환, 그리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National Chengchi 대학의 MBA 프로그램은 1964년 개설되어 대만에선 가장 역사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시아 및 유럽 지역 경영대학원들과의 협력을 통한 학생교환에 많은 촛점을 두고 있고, 대만에서 유일하게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학교이다.

또한 지난 9월 19일, 중국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NSFC)의 관리과학부 일행이 테크노경영대학원의 e비즈니스 프로그램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방문하였다. 중국의 관리과학부는 계량경영분야, 일반 경영전략분야, e비즈니스 등에 관심이 많고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와 공동연구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및 장관급에 해당되는 Siwei Cheng 교수(주임), 부주임인 Xiaotian Chen 연구원, 칭화대학 경제 및 경영대학의 Jian Chen Management Science 학과장, 난까이 대학원 국제경영대학의 대학원장인 Weian Li 교수 등의 방문 일행은 중국에서 경영과학분야에 큰 영향력이 있는 이들이다. 중국 NSFC의 이번 방문은 테크노경영대학원의 e비즈니스 프로그램에 대한 아시아지역의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최근 중국 청화대학과 북경 과학기술대학과의 교류협정을 체결한 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경영대학원(태국 소재)이 학생 교환 및 교수교환,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테크노경영대학원과의 교류협약 체결을 요청해 옴에 따라 아시아지역 및 유럽지역의 문화 이해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를 적극 추진 중이다.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상현 교수, ICANN 세계기구 이사에 선임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상현교수가 인터넷 주소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도메인 네임 인터넷법인' (ICANN;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의 이사로 선출됐다. ICANN은 인터넷이 글로벌 네트워크화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터넷환경에서 탈피, 범세계적인 인터넷 주소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98년 10월 설립된 세계기구.

경상현 교수는 향후 3년간 총 1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위원으로서, 도메인 이름, IP주소, 인터넷 프로토콜 관리 외에도 인터넷에서의 분쟁, 전자상거래 분야 등에서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사회 위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일본 두 개국에서만 한명씩 포함돼 있다. 이번 경상현 교수의 ICANN 이사 선임은 범세계화 되어가는 인터넷 시대에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서울 MBA포럼 (11월 9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이번 2000년 서울 MBA Forum은 11월 9일(목),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개최된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이번 서울 MBA Forum에도 참가하여 대학원의 2001년 MBA 입시일정과 관련하여, 자세한 입학상담 및 원서교부를 할 예정이다(문의처:02-958-3215~6, 입학관련 내용은 23페이지 참조).

미국의 경영대학원 진학을 위한 공인시험(GMAT)을 주관하고 있는 GMAC(Graduate Management Admission Council) 에서는 L.A. 보스톤 등을 포함한 미국 전역과,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유럽 지역, 그리고 일본, 싱가폴, 홍콩, 한국 등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에서 매년 MBA Forum을 개최하고 있다. MBA Forum의 개최 목적은 MBA 입시를 유치하기 위한 각 학교들이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MBA 포럼은 Yale, UCLA, Wharton, INSEAD, Columbia, USC Marshall 등 60여 개의 세계 유수한 경영대학원들이 참가할 예정이다.

■ 새책 <광고론> 테크노경영대학원 한민희 교수 (연세대 장대련 교수와 공동)

1994년 당시의 여러 광고개념과 사례를 담은 〈광고경영론〉에 이어, 6년만에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의 부각, 브랜드 마케팅의 강화, 인터넷 사용의 확산 등 우리나라 기업들 전반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교재인 〈광고론〉. 이책은 광고의 창의성, 경험성과 함께 특히 과학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1999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8월 18일,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는 KAIST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KAIST 전체 학위수여 대상자는 총 298명으로 박사 159명, 석사 82명, 학사 57명이며, 이중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총 31명으로 학사 3명, 석사 17명, 박사 11명이 학위를 받았다.

■ MBA과정 장학금 수여식

9월 18일, 테크노경영대학원 김성희 대학원장은 MBA(5개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자에게 1인당 250만원의 장학금을 상장과 함께 수여하였다. 각 전공별 수여대상은 테크노경영전공의 김도형, 김양훈, 오중산, 조병성, 경영정보전공의 송민영, 김종우, 통신경영/정책전공의 신덕순, 금융공학전공의 길재홍, 차종도, 환경경영/정책전공의 권희동 등 모두 10명이다.

■ ICEC 2000 공동대회장, 이재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전자상거래 지구촌 산.학 협력 모색" 강조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2차 전자상거래 국제학술대회(ICEC 2000) 공동대회장을 맡은 이재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가 한국의 인터넷산업과 전자상거래 분야를 한층 성숙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세계적 석학과 기업 대표 등 30개국 1000여명이 참석, 총 53편의 학술논문이 총 20개의 세션으로 발표되었으며, 최신정보를 제공하였다.

■ 베트남 과기환경부 경영훈련원장 뉘구엔 시록, 테크노경영대학원 방문

"한국 과학기술, 환경 분야의 구체적 현황과 장점을 배우고 이번 방문의 성과를 향후 베트남의 과학기술 정책 및 고급인력 양성 분야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베트남의 뉘구엔 시록 박사가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과학기술, 환경 노하우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 9월 5-7일 대학원을 방문하였으며, 테크노경영대학원 이승규 교수의 협조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았다.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eBiz 아이디어 뱅크'로 각광

최근 네티즌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터넷 동문회사이트 '아이러브스쿨' (www.iloveschool.co.kr), 인맥구축 사이트인 '싸이월드'(www.cyworld.co.kr), CD전문쇼핑몰인 '마이존'(www.myzon.com), 온라인미팅 커뮤니티사이트 '세이큐피드'(www.saycupid.com), 수십개 사이트를 한눈에 보는 동시로그인 맞춤정보 사이트인 '넷앤미닷컴'(www.netnme.com) 등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출신 동문과 재학생들이 만든 대표적인 회사들이 많다.

■ eBiz Club 주최 특별 세미나

테크노경영대학원의 학생 동아리 eBiz Club에서는 9월 8일(금), Supex경영관에서 김용운 공인회계사 (선명회계법률컨설팅 근무)와 박현철 변리사(Lee International 근무)를 초청하여 "벤처기업설립 및 특허권 취득(BM특허 포함) 절차"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또한, 참석 예약자에 한하여 '벤처경영의 ABC(신민철 공인회계사, 김정욱 변호사 외 2인 공저)'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미나 주제와 관련 질문을 사전에 접수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MBA 최고 경영자 초청 강연회

학생자치적으로 만들어진 MBA초청강연회에서는 9월 26일, McKinsey의 Mr. Dominic Barton(서울 사무소 대표)를 초청, "Winning in the Global New Economy" 라는 주제로 가을학기 첫번째 강연회를 가졌다.

■ 홈페이지에 취업게시판 새로 오픈 (http://kgsmweb.kaist.ac.kr)

테크노경영대학원 취업지원실에서는 내부 인트라넷의 취업게시판 공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 외부인들이 직접 방문하여 취업정보를 입력,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추진 중이다(자세한 사항은 22면 참조).

(문의: 02-958-3216, 3243)

■ 테크노경영대학원 동창회 홈페이지 안내

(http://kgsmalumni.kaist.ac.kr)

■ MBA 5개 전공, 2000학년도 해외연수 결과보고 및 평가회 개최

8월 31일, 테크노경영대학원 SUPEX 경영관에서는 이번 여름학기 중에 RPI, 샌프란시스코, UC 어바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있었던 MBA 학생들의 해외연수 결과 보고 및 그에 대한 평가회를 가졌다.

■ 수요 음악회 개최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SUPEX경영관 Atrium(크로네 주최)

eBiz Awards

2001 KAIST eBiz Awards

"독창적이고 실용적이며 사업가능성 있는 eBusiness (이하 Biz) 모델을 찾아라."

2001년 3월에 첫 수상자가 발표될 KAIST eBiz Awards의 심사기준이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eBiz 분야에 역량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또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실제 사업화하자는 취지에서 내년부터 KAIST eBiz Awards를 개최한다.

KAIST eBiz Awards 의 목적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우리나라 eBiz 분야의 교육연구를 선도함과 동시에 기술과 경영이 결합된 내실있는 eBiz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실제 사업화함으로써 국내 eBiz 벤처를 본격적으로 활성화시키고 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주최하는 이 상은 KOSDAQ, 삼성증권, SK Telecom, 미래에셋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우선 1회 참가대상은 KAIST 학생으로 제한된다. 단독 또는 팀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으며 팀은 5인 이내로 하되, 팀원 중 1명 이상은 반드시 테크노경영대학원 재학생이어야 한다. 1차 예비심사, 2차 본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자를 선발하는데 심사위원은 기술과 경영분야로 나눠 10명 이내의 KAIST 교수, 산업계 인사, 실리콘밸리 외국 인사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1차 심사는 서류로만 진행되며 2차 심사는 사업계획서 발표, 질의 응답과정을 거친다. 2차 본 심사는 결선 진출팀들이 프리젠테이션 및 데모를 발표하는 eBiz Awards Fair 형태로 테크노경영대학원 SUPEX경영관 최종현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최우수상(KAIST 원장상) 한 팀과 우수상(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상) 두 팀이 선정되고 이들에게는 각각 5,000만원과 1,000만원의 상금이 창업지원금으로 수여될 예정이다. 이 밖에 예심 통과자들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수상자들은 상금 이외에 실제 사업화 지원, 기술과 경영에 대한 자문 및 지원, 창업보육센터 입주 추천 등의 혜택도 받게 된다.

eBiz Award의 구체적인 응모요령은 10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확정된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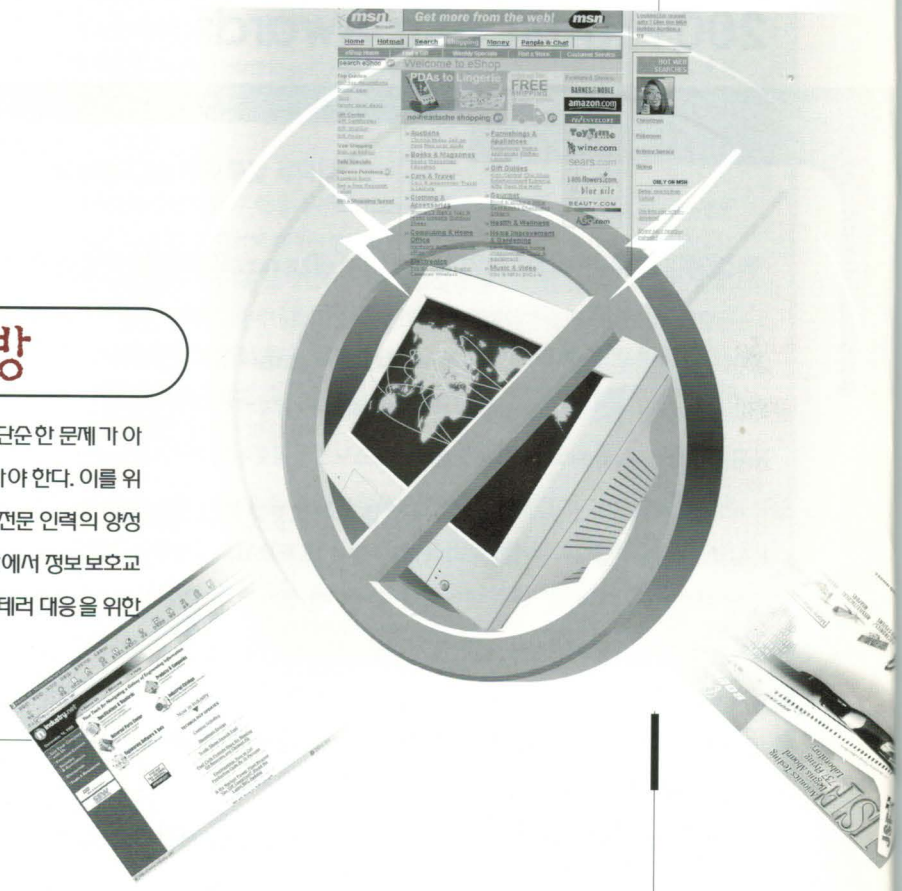
▶ 주요일정

- 2001.1.1-2.15 참가 신청 접수
- 2001.2.16-2.25 1차 심사 통과자 발표
- 2001.3.12 2차 본 심사 및 시상식

우선은 KAIST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향후 일반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개최횟수도 연간 2회로 늘릴 계획이다. Ⓕ

글/ 김진선 기자

2000 CYBER
Crime & Preservation



사이버 범죄와 예방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범국가차원에서 민/군/관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연구인력의 저변 확대 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정보보호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적어도 20년 간은 인터넷이 사이버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영국의 보험협회가 발표한 바 있다. 수 개월전 전세계적으로 발생했던 러브바이러스는 수 천만대의 컴퓨터를 감염시켰고 미백악관과 연방수사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 주요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을 마비시켜 약 100억 달러에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 지난 8월에는 대학, 기업,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국내 서버 250여개가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당했으며 특히 대규모 인터넷데이터센터까지 해킹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의 이러한 유형은 사이버 범죄의 대표적인 예이며, 향후 고출력 전자파를 발생시켜 전파체계를 교란시킴으로써 컴퓨터통신, 전화, 방송, 금융거래 등을 일시에 정지시킬 수 있는 고출력 전자총도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라고 할 수 있으며, 국가간의 사이버 테러나 사이버 전쟁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사이버 범죄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정보보호 산업은 그 중요성과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시장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정보보호산업 시장규모는 올해 110억 달러에 달하고, 오는 2003년까지 연평균 30%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유지할 전망이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03년에는 210억 달러 시장규모는 거뜬히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는 정보보호 분야가 정보산업은 물론 전체 경제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욱이 미래에 정보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보안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심단어로 자리잡았다.

정보보호 산업은 크게 제품산업과 서비스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표 1 참조).

정보보호 제품이나 서비스는 암호 알고리즘 기술, 고집적 칩 개발기술, 고속 연산기술 등 첨단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암호기술 등 정보보호 핵심기술 및 컴퓨터, 통신,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이 정보보호 시장을 주도하고 있

다. 국내의 정보보호 산업은 현재 성장기로 진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정보보호 업체들은 5년 미만의 신생업체이고, 다른 정보통신산업과 비교하여 영세한 상태이다. 그러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는 '안철수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 와 침입차단시스템을 개발하는 '시큐어소프트' 등 국내 20대 기업은 자체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 개척을 추진중에 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주요 각국 정부의 대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은 대통령 소속하에 1996년 7월 '주요정보통신기반구조보호위원회(President Commission on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를 설립하였으며, 1999년도에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15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으며, 콜로라도 주에 사이버 전쟁을 담당할 사단도 지정해 좋은 상태이다. 일본 역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999년 8월 부정 접속 행위의 처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 액세스 행위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을 공포하고 올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중국은 1997년 컴퓨터 바이러스 부대를 창설한 이래 정보전쟁을 담당할 제 4의 기구창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1999년 8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정보보안119' (www.nis.go.kr/nissc)사이트를 개설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예방과 사고 발생시 대응방법 및 복구기술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가정보대학원내 사이버테러 대응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1996년부터 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보보호심포지엄' 을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부호기술연구부와 국방과학 연구소의 정보보호부를 통합하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를 설립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기술을 포함해 국가정보 보안기술, 암호이론, 국가 주요 정보화 기반구조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첨단 보안기술 개발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보호센터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기술개발 촉진과 국제기술교류를 위해 세계정보보호올림페어(일명 해킹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범국가차원에서 민/군/관이 공동으로 대처해야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하고, 정보보호 전문 인력의 양성과 연구인력의 저변 확대 등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 정보보호교육을 활성화해야 하며,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이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해야 하며, 정보보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글/이성준, 최덕현, 정영조 기자

〔표 1〕 주요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분류

제품	항 바 이 러 스	바이러스 등의 시스템 유해요소의 진입을 차단하고 손상된 시스템을 복구
	방 화 벽	공공 또는 사설망으로부터 다른 망으로의 침입을 저지
	암 호 화 제 품	특정 정보의 암호화
	가 상 사 설 망	공중망에서 두 지점간 터널링 설정을 통해 실질적인 사설망 기능을 수행
	공 개 키 기 반	공개키를 이용한 인증 프레임워크
	인 증	비밀문자나 생체인식기술을 통해 사용장의 신원을 확인
	보 안 스 마 트 카 드	스마트카드에 암호 알고리즘을 이식하여 접근제어나 사용자 신원확인 기능을 수행
	보 안 관 리	침입탐지와 검사기구 등을 통한 무결성 확보
서비스	전 문 서 비 스	초기 보안체계설계 선정 및 구축/ 최적 보안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시 스 템 통 합	새로운 보안제품과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새로운 보안정보제공
	보 안 관 리 서 비 스	위험 및 취약성 분석/ 보안시스템 평가, 점검 및 감리
	인 증 서 비 스	인증사업자의 인증서비스/ 정보보안검색 공증서비스 및 기타 인증서비스

KAIST의 정보보호 학제 전공

김 병 천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산업경영학과/경영공학전공 책임교수)

1. 개요

정보통신이라는 새로운 혁명을 21세기는 요구하고 있다.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디지털 사회는 유용한 정보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활용되면서 더욱 더 발전을 하게 된다. 많은 정보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달되면서 전세계의 산업과 인류의 생활 전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오고 있다. 특히 정보 이용의 변화는 전자상거래와 같은 e비즈니스 분야에서 인류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편리함에 반해 정보보안이라는 문제는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 되고 있다. e비즈니스를 비롯한 전자상거래 및 여러 네트웍 기반 응용분야는 안전한 정보기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범위를 넘어서서 정보보호가 국가 안보로 직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보호 및 정보윤리의 연구와 교육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반드시 담당해야 할 역할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하여 정보보호 학제전공이 개설되었다. 또한 KAIST는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보호 기술의 연구와 인력 양성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난 6월 정보보호 교육연구센터(Information Security Center)가 설립 되었다. 정보보호 교육연구센터는 KAIST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정보보호 기술과 인력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정보보호 기술을 개발하고, 학사, 석사, 박사 학생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정보보호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연구 센터로 정보통신부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고 있다.

정보보호 교육연구센터와 더불어 정보보호 학제 전공은 KAIST내의 전산학과 전산학 전공, 전기 및 전자 전공, 수학과, 산업공학과,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공학전공 소속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다. 본 학제 전공은 위의 관련학과 및 전공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입학 지원 시에 관련학과 및 전공에 응시하면서 동시에 본 학제 전공에 지원 할 수 있다. 다음은 정보보호의 학술 및 연구분야에 관하여 논한다.

2. 학술 및 연구활동

■정보보호연구

- 네트웍 보안: 최근 들어 인터넷 프로토콜의 허점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존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보완 방법 및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의 보안 기술을 연구한다.
- 시스템 보안: 시스템 내부의 보안은 정보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분야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기존 시스템의 보안 허점 검사기술, 바이러스 방지 기술, 그리고 안전한 운영 체제 설계 기술 등을 연구한다.
- 데이터베이스 보안: 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정보시스템 보안에 있어 필수 요소이며,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을 위하여 데이터 접근 및 유추 제한 기법 및 무결성 확보기법을 연구한다.
- 무선통신보안: 무선 통신은 누구나 비교적 쉽게 통신 신호를 도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상에서의 보안과 다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차세대 기술이 무선 통신이라는 점에서 무선 통신 프로토콜 보안기술 및 무선통신 망 관리기술 등을 연구한다.
- 암호학: 현대 정보보호 기술 중 데이터 보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핵심기술은 암호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한 암호 함수 설계 기법, 안전한 암호 프로토콜 설계기법, 암호기술의 실제 적용기법과 암호 표준화에 관하여 연구한다.

■ 정보보호 교육

- 정보윤리: 정보윤리의 부재는 인터넷 범죄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본 교육은 다양한 정보보호 지식을 갖추면서 동시에 건전한 정보보호 윤리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둔다.
- 정보보호기술: 국내외 정보보호 표준 및 기 개발된 정보보호 기술 등을 다양하게 교육하고 자체 실습과 현장실습을 통한 실제 시스템 적응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표를 둔다.
- 시스템 및 네트웍 관리: 시스템과 네트웍 환경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는 정보보호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본 교육의 내용은 현대 복잡한 정보시스템의 전반에 걸친 이해와 새로운 정보기술을 교육한다.
- 해킹 비법과 대책: 해킹과 정보보호 기술은 창과 방패의 관계이며 해킹기술에 대한 이해는 정보보호 기술을 숙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국제적인 해킹 기술의 판독과 이를 방어하기 위한 기술에 중점을 둔다.
- e비즈니스 보안: e비즈니스는 사이버 기반 시스템에서 가장 보안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특히 전자상거래 모델에서 보안성 및 개인 정보를 위해 필요한 지식을 교육한다.

3. 정보보호 학제 전공의 학위과정

본 과정은 대학원 교과과정으로 석사 및 박사과정이 있으며, 학위증서/학위기는 학생이 입학한 소속학과 또는 소속 전공의 명칭과 동시에 "정보보호 학제 전공"이 기록된다.

4. 교과목 이수 요건

■ 석사과정

가. 졸업이수학점: 총 36학점 이상

나. 공통필수(3학점)

전산응용개론, 확률 및 통계학, 공업경제 및 원가분석학 중에서 택1 하여 이수

(단, 본 학제전공에 참여하는 학생 중 전자전산학과 전산학전공 소속학생은 전산응용개론을 이수할 경우 인정되지 않음)

다. 학제전공필수(6학점)

정보보호개론, 컴퓨터보안 및 실습

라. 소속학과(전공) 필수(6학점)

소속학과 혹은 전공에서 지정한 전공필수과목 중 6학점 이상을 이수

마. 선택(9학점 이상)

본 학제전공에서 개설한 선택과목, 소속학과 혹은 전공에서 지정한 전공필수과목, 본 학제전공에 참여한 학과 혹은 전공의 선택과목 중에서 본 학제전공에서 지정한 과목 중에서 9학점 이상 이수

바. 연구학점(12학점)

논문연구, 개별연구, 세미나 등으로 12학점 이수 (세미나의 경우 소속학과 혹은 전공에서 개설되는 세미나를 이수하여도 대체 가능함)

박사과정 교과목이수 요건은 10월중 교무처에서 교과과정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전산학 전공의 윤현수교수(042-869-3529)나 테크노경영대학원 김병천교수(02-958-3699)에게 문의 바랍니다.

21세기의 부각되는 정보보호에 관련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보기를 기대 합니다. F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e비즈니스 특화 경영대학원으로 도약

e비즈니스 프로그램, 테크노경영 MBA 하위 과정으로 신설

최첨단 경영교육의 선봉에 서온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인터넷 혁명 시대의 진정한 전문가 육성을 위한 e비즈니스 과정을 신설하고, e비즈니스 특화 경영대학원으로서의 도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이처럼 e비즈니스 교육 강화를 위해 그동안 BK21 사업을 지원했으며, 올초부터 SK 그룹, 기획예산처, 산자부 등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e비즈니스 비학위 단기과정을 운영, 추진중이다.

1년 6개월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이번에 신설된 e비즈니스과정은 내년부터 테크노경영 MBA의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e비즈니스 과정 개설로 인해 관련 교과목이 신설, 보강되었으며 유사과목이 e비즈니스 관련 과목으로 조정되었다. 이번 교과목 개편은 e비즈니스의 정보기술과목과 비즈니스 모델, 인터넷 마케팅, 인터넷 금융, 경영전략, 사이버 벤처 등의 과목과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실습과목을 통해 새로운 e비즈니스 경영 패러다임의 선도를 목표로 한다.

이번에 새로 개설된 과목은 e비즈니스 실습(eBusiness Practicum), e비즈니스 시스템 개발(eBusiness System Development), e비즈니스 정보기술(eBusiness Technology), 인터넷 마케팅(Internet Marketing) 등이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과 경영이 e비즈니스 개론(Introduction to eBusiness)으로, 생산경영론이 생산전략과 공급사슬 관리(Operations Strategy and Supply Chain Management)로 변경된다.

e비즈니스 실습은 e비즈니스 사례연구 중심으로 이뤄진다. 학생들은 팀을 구성, 실제 e비즈니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하고 시스템을 구현한다. 이전의 수업들을 통해 얻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경영적, 기술적인 실제 이슈를 다루게 되며 기업고객이 제공하는 실제 프로젝트를 다루거나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를 다루게 된다. 시스템 구현을 위한 툴에 대한 실습도 병행된다.

e비즈니스 시스템 개발 과목에서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기술들을 배우게 된다. 웹디자인 및 웹프로그래밍(DHTML, XML, ASP, 자바, 자바스크립트 등)을 배우고 이를 응용한 쿠키, 검색엔진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외에 객체지향 방법론, 콤포넌트개발 방법론 등 e비즈니스 통합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론과 실습도 겸한다.

e비즈니스 정보기술은 실제 구축에 필요한 기반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개설된 과목으로 이 시간에는 정보통신 및 네트워크, 인터넷, 데이터 교환, 보안접근, 암호보안, 전자결재, 전자지불,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이닝 등의 전반적인 e비즈니스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게 된다.

인터넷 마케팅은 정보화 시대에 기존 마케팅 이론을 접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를 파악하고 마케팅 기법으로서의 인터넷을 연구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오는 자유와 통제, 신용, 프라이버시 등의 사회적인 이슈도 다루게 된다.

e비즈니스 개론은 e비즈니스의 기본 개념과 e비즈니스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과목이다. 새로운 경영의 기본 원리 이해를 중심으로 실제 응용과 경영 이슈들도 다루게 된다.

생산전략과 공급 사슬관리라는 과목은 공급네트워크의 전략, 설계, 진단, 개발, 운영 및 개선, 혁신을 다룬다. 네트워크 상의 가치창출 및 가치전달과정의 성과를 결정하는 전략적 이슈와 프로세스 혁신을 위한 방법론을 다룸으로 공급사슬통합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상과 같이 신설, 변경되는 교과목으로 인해 e비즈니스분야 교육에 대한 테크노경영대학원생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MBA과정

General MBA Program

- 테크노경영전공 (Techno MBA)
  - 기술 생산경영 Track
  - 마케팅 Track
  - 벤처경영 Track
  - 정보통신 Track
  - 재무 Track
  - eBusiness Track(신설)

Special MBA Program

- 경영정보 전공 (MIS MBA)
- 금융공학 전공 (FE MBA)
- 환경경영/정책 전공 (Green MBA)
- 통신경영/정책 전공 (Telecom MBA)

글/김진선 기자

e비즈니스 산업의 인력난 :

급증하는 인력수요와 대처현황

그러나 체계적이고 세밀한 e비즈니스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파악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전문인력의 원활한 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산자부에서는 1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네트워킹 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확산은 새로운 산업의 등장과 기존 산업에서의 사업방식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유로 e비즈니스 부문에의 기업들의 투자가 급증하게 되고 자연히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증가를 동반하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노하우와 IT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서 OECD의 보고에 따르면 '99년의 e비즈니스 및 IT인력 부족은 60만명에 달한다.

●선진국의 전자상거래 인력부족 현황 (단위: 명)

국가	미국	독일	캐나다	영국	전세계
추정 부족인원	346,000	60,000	20,000~30,000	20,000	600,000

자료: "전자상거래백서" (산업자원부, 2000. 6)

국내의 상황은 아래 표의 산업연구원의 예측을 참고할 수 있다. 수요는 부가통신서비스 분야에 포함된 전자상거래 인력(20%로 추정)에 사이버무역 인력에 대한 수요전망을 합산한 것이고, 공급을 추정함에 있어서는 KAIST 등의 정규교육기관만을 포함시킨 것으로서 실제로는 부족인력이 이보다 적을 것이나, 국내의 인력부족현상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

●국내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수급예측 (단위: 명)

연도	수요	공급	부족인력
2000	16,000	5,500	10,500
2001	26,000	6,500	20,000
2002	37,000	6,600	30,000

자료: "인터넷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산업연구원, 2000. 1)

국내에서 현재 추진중인 각종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다음 표와 같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세밀한 e비즈니스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파악이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전문인력의 원활한 양성을 위한 국가차원에서의 인력양성 마스터플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산자부에서는 1억원 규모의 '전자상거래 인력양성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전자상거래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대 학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e비즈니스관련 정규교과목 운영 외에 정부기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e비즈니스 포럼, 각종 전문과정 등을 운영 ● 안산대 등 전문대학에서는 전자상거래학과 설립
민간 연수기관	● 표준협회, 생산성본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세미나 및 단기교육 과정을 운영 ● 한국커머스넷, 매경, 앤더슨 컨설팅, 한국Oracle은 공동으로 EC-ACADEMY 개설
정부/유관기관	● 산자부는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를 지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지원예산: '99년 27억원, 2000년 20억원) ● 정통부는 전문기술인력 20만명 양성 추진(2000년 795억원 지원)
기 업	● 삼성물산, LG-EDS시스템은 카네기멜론 등 외국의 전문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하에 선진교육 시도
관련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증: 전자상거래 관리사 ● Microsoft, Oracle 등: IT관련 공인 자격 프로그램

최덕현 기자

1) 통신경영의 의미
2) 무선통신과 인터넷의 만남
3) IMT-2000 서비스
4) 통신경영과 의사결정

무선통신과 인터넷의 만남: 무선 인터넷 세상

안 재 현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한국 인터넷 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0년 8월 말 현재 1,640만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같은 시기 이동전화 사용자는 약 2,600만명에 이른다. 이런 숫자는 보급률 측면에서 보면 세계에서 5위권에 해당되는 놀라운 수치이다. 이러한 가장 성공적인 두 서비스가 결합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바로 최근의 정보통신 서비스의 화두로 등장한 무선인터넷 서비스인 것이다.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기존의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는 유선인터넷이 아닌 휴대폰이나 Personal Digital Assistant와 같은 무선 단말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최근 국내 통신업체를 중심으로 음성서비스 이후의 차세대 서비스로서 경쟁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일본의 NTT Docomo에서 제공되는 i-mode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필두로, 아시아와 유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무선인터넷을 본격 사용하게 될 2005년경의 무선인터넷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아마도 무선단말기에서 제공되는 정보로 여러 사람과 물건을 공동구매하고, 무선단말기에 달린 스마트 카드를 통해 즉시 결제하며, 길가다가 필요한 음료수도 동전 없이 구매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싸게 파는 곳을 지날 때는 세일정보를 무선단말기를 통해 받고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그곳을 찾아 가게 된다. 쇼핑 중에도 집으로 돌아올 애들을 위해 시간에 맞추어 원격으로 집안의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여 필요한 물건은 자동으로 구매하여 집으로 배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우리가 꿈꾸던 세상이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선인터넷 세상의 모습이 실현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유선인터넷과의 비교에서 몇 가지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이동성을 제공해 주는 무선단말기는 그 기능면에서 유선인터넷의 접속에 이용되는 컴퓨터와 그 모니터에 비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작은 액정화면, 불편한 User Interface, 작은 메모리, 전원공급의 한계 등이 그 문제이다. 둘째, 네트웍측면에서 유선인터넷에 비해 전송속도와 신뢰성이 떨어진다. 세째, 시장측면에서도 유선네트웍 사용자의 컨텐츠에 대한 욕구와 무선인터넷 사용자의 그것과는 아주 다른 성격을 지닌다. 흔히 말하는 Web Surfing이 유선인터넷 사용자에게는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무선인터넷 사용자에게는 고통인 것이다. 또한 정보표현과 정보접근 방법도 표준화 되어야 하고 호환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선인터넷과 무선인터넷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사업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해결해 가고 있다. 첫번째, 무선단말기의 기능과 관련되어 쉽게 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Mobile Portal을 통해 이동환경에서 쉽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둘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원활한 전송을 위해 기존 네트웍을 개선하여 2000년 후반부터는 기존 9.6 kbps 에서 10여배 이상이 빠른 128 kbps 의 속도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세째,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컨텐츠 사업자와 제휴하여 소비자 선호에 맞는 컨텐츠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Forum을 통해 표준의 설정과 정착, 무선 컨버터를 이용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차후 여러 방면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기존의 휴대폰 단말기가 무선인터넷을 위한 소비자를 위해 차별화 된 모양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둘째, Mobile Portal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이동통신 사업자와 망을 가지고 있지 않고 컨텐츠 만을 제공하는 독립적 포탈 사업자와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물론 컨텐츠의 유료화를 위한 수익모형 개발이 병행될 것이다. 셋째, 망에 접근한 시간이 아닌 정보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패킷방식의 요금체계가 널리 도입될 것이다. 1997년 본격적인 이동통신서비스 경쟁도입 이후 외국의 예에 비하면 이동전화요금 인하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은 한국 실정에 비추어, 무선인터넷 사용자들에게는 접속시간에 따른 과금이 아닌 사용한 만큼의 정보에 대해서만 과금하는 시스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또 다른 모습의 단말기로 소비자에게 비생산적인 소비를 조장하고 외국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에 부합하는 컨텐츠를 저렴한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무선인터넷 세상을 여는 데에 가장 중요한 Killer Application은 무엇이 될까? 주식거래, 지불, 구매 등이 이루어 지는 Mobile Commerce일까?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한 Location Commerce일까? 아니면 컬러단말기를 통해 보는 2분짜리 동화상 뉴스 클립일까? 혹은 아무도 생각치 못했던 다른 어떤 것일까? Killer Application이 무엇이 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아마 창의성 있는 젊은 벤처인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일 것 같다. F

전통기업의 유통채널에서의 online과 offline의 하모니를 향하여

김 상 용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미국의 Forrester Research의 조사 결과에서 약 75% 정도의 응답 기업들이 인터넷으로 인하여 유통채널에서의 갈등이 증대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기존 점포들과의 갈등문제 혹은 기존 유통채널과의 관계 악화 위험에 대한 심각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완화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마케팅 기본원칙의 key words 중에 하나인 차별화 답이 될 수 있다. 채널기능, 목표시장, 그리고 고객가치에서의 차별화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차별화를 성공적으로 이루려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채널구성원간의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1) 채널기능의 차별화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주식 거래로 급성장한 Charles Schwab에 자극을 받은 거대 금융기업 Merrill Lynch는 단순한 주식거래 중계업무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으로 넘기는 대신 기존의 중계업무를 하던 인력 중 15,000 여명을 수수료를 받는 금융자산 관리업무로 재배치하였다.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 컨설팅 쪽으로 인력을 충원, 재배치 함으로써 자사의 역량을 경쟁사와 차별화할 뿐 아니라, 인터넷의 등장으로 인한 기존의 중계업무의 인력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이처럼 영업사원의 기능은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시키고 단순한 주문 접수업무는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두 채널의 기능을 차별화함으로써 내부 판매원과의 갈등을 극소화할 수 있다. 이 때 영업사원은 단순한 판매 창구가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관계마케팅에 집중하고 이에 상응하는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목표시장의 차별화

전통적인 시장 세분화에서 활용되는 원칙을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유통채널의 등장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우선 지리적으로 기존 유통채널과는 구별되는 시장을 인터넷 유통채널이 갖는 것이다.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Estee Lauder사의 Bobbi Brown이나 Clinique브랜드의 경우 인터넷으로 주문 가능한 지역을 미국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그 예라 하겠다. 이 방법은 인터넷의 공간적 제약이 없다는 장점을 활용하지 못 하는 것이기는 하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유통채널간의 갈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얻는 이득이 공간적 제약을 가할 때 생기는 손실보다 클 경우에 특히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기존 유통채널을 이용하는 고객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목표고객을 차별화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연령, 성별, 라이프스타일, 구매성향 등에서 인터넷 유통채널에서의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존의 오프라인의 유통채널 고객과의 차이에 따라 마케팅 전략을 달리한다면 채널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카드를 제작, 판매하는 American Greetings Inc.의 예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채널 즉 소매점은 50대 이상의 여성 고객을 표적으로 하는 반면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는 젊은 남성 고객을 표적시장으로 하여 고객을 분리하고 있다.

(3) 고객가치의 차별화

와인을 판매하고 있는 Kendall-Jackson사는 일반 소매 유통채널과 더불어 미국 내 13개 주에서는 인터넷에서도 와인을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와인은 값비싼 고가품 위주로 구성하고 있는 반면에 일반 소매 유통채널은 좀 더 값싸고 대중적인 제품을 취급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채널은 잠재 고객을 위해서 고급 와인 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적인 와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통채널의 차별적인 가치를 더하고 있다. 물론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제품만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차별화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유통업자 상표(private brand)를 개발하여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유통전략도 하나의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다.

채널기능, 목표시장, 고객가치를 차별화하면서 동시에 추구하여야 하는 것이 채널 구성원간의 협조이다. 제조업체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고객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되 판매는 유통업자에게 연결시켜주거나, 제조업체가 인터넷으로 직접 제품을 판매하더라고 유통업자의 차별적인 다른 제품을 웹사이트에 함께 광고하여 주는 식의 채널 구성원간의 협조가 채널 갈등을 줄이는데 필요하다. 특히 오프라인의 기존 채널과 인터넷의 온라인 채널 각 자가 자리를 잡아가기까지의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채널 구성원간의 협조는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중요하다. F

재학생 국제 공인 자격증 획득 소식

글로벌 경영 시대를 맞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재무, 회계, 보안 부문의 국제 공인 전문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증 시험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미 익숙해진 미국공인회계사(AICPA)를 비롯하여 국제재무분석사, 증권분석사, 투자상담사, 금융자산관리사, 위험관리사, CISA 등 유망한 국제 자격 인증 절차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 호에서는 AICPA와 CISA 두 자격을 재학 중 동시에 섭렵한 테크노경영대학원 가족 두 명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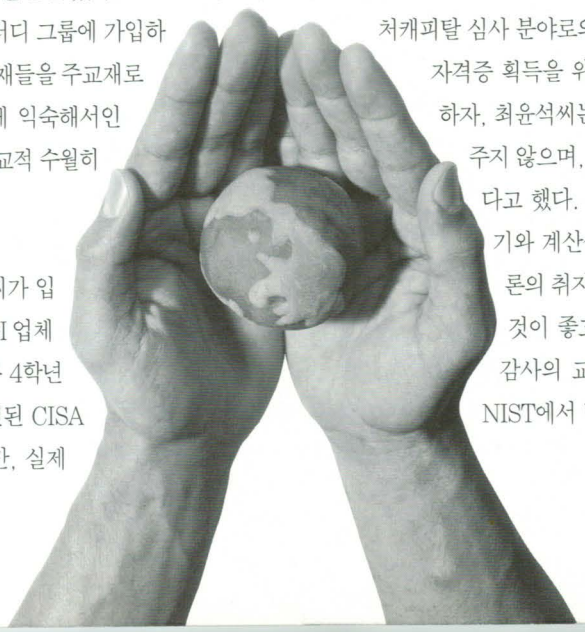
그 주인공들은 테크노경영전공(Techno MBA) 최윤석씨와 경영정보전공(MIS MBA)의 정문상씨로, 두 사람이 획득한 AICPA는 미국세법과 사업을 바탕으로 국제 세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제관계의 거래 해결을 위한 자문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자격, CISA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및 감사를 담당할 뿐 아니라, 관리와 계획, 조직, 정보자산의 보호, 재난복구,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평가와 위험을 관리하는 국제 공인 자격이다.

Techno MBA의 최윤석씨는 학부와 석사과정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고, 이 곳의 입학 전에 그가 근무했던 곳 역시 전공과 관련된 삼성SDS였다. 엔지니어 배경이 기획 업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보다 전략적이고 광범위한 경영 마인드를 얻기 위해,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의 MBA과정 입학을 마음 먹었고, 경영에 대한 이해를 보충하기 위해 준비한 AICPA 자격 획득의 계획이 1999년말 AICPA의 합격을 통해 무난히 달성되었다고 한다. 물론 혼자서 준비하는데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방과후 동네의 작은 학원을 다니며 좀더 체계적인 훈련을 했다. CISA는 지도교수인 한인구 박사의 권유로 우연히 스터디 그룹에 가입하게 되었고, 정보시스템 보안감사 과목의 교재들을 주교재로 공부했는데, 기업정보시스템과 정보기술에 익숙해서인지 학교에서의 수업을 충실히 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히 합격할 수 있었다.

MIS MBA의 정문상씨가 입학 전 근무했던 곳 역시 SI 업체로 정문상씨는 이미 학부 4학년 때부터 전공과 보다 관련된 CISA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실제 준비는 테크노경영대학원 입학 후 정보시스템 보안 및 감사 과목을 들으면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국제화 추세의 경영환경에서 보다 전문적인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를 위해 AICPA 자격증 취득 역시 동시에 고려했고, 전문 학원을 다니면서 1년 여 동안 평균 주당 15시간의 수업을 통해 준비했다.

두 학생의 시험 준비 과정을 들으면서 참 공통적인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AICPA는 주로 전문 학원의 커리큘럼을 통해, CISA는 정보시스템 보안 및 감사 과목에 충실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점이다.

물론 재학중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느라 어려운 점이 많았다. 정규수업에 충실하려고만 해도 빠듯한 커리큘럼을 소화하며, 자격증 준비까지 하는 탓에 당연히 수면시간과 그 밖의 여가시간이 부족했고, 현지에서 실시되는 AICPA 시험의 경우, 3~4일 동안 에세이 작성을 포함, 16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담이 많이 되었다고 했다. 재학중 두 자격증을 동시에 획득하면서, 대학원 생활을 보다 충실히 했다는 성취감, 자신감이 수반되었고, 앞으로의 진로 선택면에서도 이점이 있다고 두 사람은 말한다. 한편, 최윤석씨는 졸업 후에 다시 회사로 복귀할 예정이며, 정문상씨는 컨설팅 업무 혹은 벤처캐피탈 심사 분야로의 입사를 희망하고 있다.



자격증 획득을 위해 준비할 후배들을 위해 조언을 구하자, 최윤석씨는 단지 자격증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며, 자신의 방향과 비전의 설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문상씨는 AICPA의 경우, 단순 암기와 계산식의 공부보다는 근본적인 원리와 이론의 취지 및 목적, 사고방식 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고, CISA의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 및 감사의 교재로 쓰인 Ron Weber의 교과서와 NIST에서 발간한 책을 적극 추천했다. Ⓕ

글/ 최혜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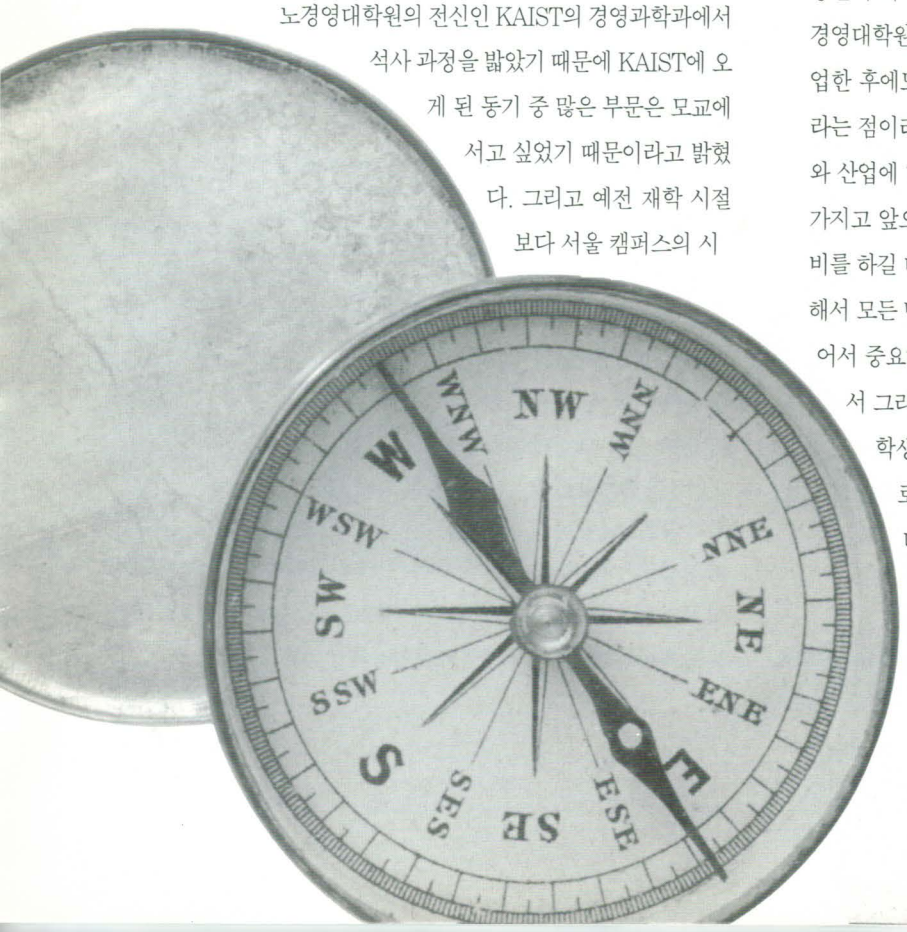
Welcome! Techno Familly

Welcome! Techno Familly

김상훈(金祥薰)
(Ph.D., Stanford University, 2000)
강의 및 연구분야:
- **하이테크 마케팅**
- **국제마케팅**
- **인터넷 마케팅**
- **신상품 경영**

올 가을부터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마케팅 관련 과목을 강의하게 된 김상훈 교수를 만나보았다.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 오게 된 동기에 대해 김교수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전신인 KAIST의 경영과학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KAIST에 오게 된 동기 중 많은 부분은 모교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예전 재학 시절보다 서울 캠퍼스의 시설이 많이 향상되어 학교 분위기가 더 좋아졌음을 느꼈다고 한다.



올 가을에는 국제 마케팅을 강의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전공 분야와 관련된 high-tech 경영이라는 교과목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High-tech 경영이란 기술적인 측면 또는 시장의 상황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시장에 관련된 것으로 반도체,컴퓨터, 통신 분야의 산업을 예로 들 수 있다고 한다. 과목명을 high-tech 마케팅이라 하지 않고 high-tech 경영이라고 한 이유는 마케팅 뿐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경영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추구하는 e비즈니스교육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목으로 김교수는 앞으로 e비즈니스와 관련된 마케팅, 국제 경영 과목들을 개설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교수는 경영공학 학생들은 방법론을 더욱 충실히 하여 좋은 학자들이 되길 바라고, MBA 학생들 또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의 MBA 프로그램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학교를 위해서 일해주었으면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라고 한다. 학교 선배로서 후배들이 직간접적인 실질 경제와 산업에 대한 관심을 통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앞으로의 추세를 파악하여 먼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모든 면에서 갖춰진 사람이 되는 것이 경영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김교수의 선배로서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김교수의 애정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고, 앞으로 김교수가 개설할 과목들을 통해 테크노경영대학원은 좀 더 충실한 e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리라 기대된다.

글/ 김은진 기자

Welcome! Techno Familly

Welcome! Techno Familly

연구센터 신규직원 소개

새 학기,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연구센터와 어학센터에 새로운 직원이 보강되어 한층 발전된 모습이 기대된다. 새로 오신 금융공학연구센터의 현정순 박사와 어학센터의 이향숙씨를 각각 인터뷰 정리해본다.

■ 금융공학연구센터 연구원 현정순 박사

현정순 박사는 미국 로체스터 대학에서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서울대, 영남대, 경북대에서 박사후 연구활동을 마치고 지난 8월에 금융공학연구센터에 위촉되었다.

금융 분야에서의 고급 수학의 응용 가능성에 대한 평소의 개인적 선호도와 테크노경영대학원의 금융공학센터에서의 추진 방향이 잘 일치되어 부임을 결정하였다. 현재 현정순박사가 수행하는 연구는 금융위험관리에 관한 금융감독원 프로젝트로, 다음 학기에는 금융 수학 강의도 맡게 될 예정인데, 학교와 연구센터에 대한 느낌을 묻자, 아직은 기간이 오래지 않아, 다소 막연한 느낌이 들지만, 센터에서 해야 할 많은 미개척 분야들이 느껴지고, 경영대학원에 이런 연구센터가 존재한다는 점은 산학 협조 차원에서 매우 큰 발전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테크노경영대학원이 외국의 다른 대학원의 시설이나 교수진의 수준에 못지 않은 학교라고 한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수학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어렵게 생각하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서 이런 선입견들을 없애는 일도 본인의 책임중에 하나라고 했다. 한편 현정순 박사는 부군과 같이 유학 생활을 하였는데, 부군 역시 경제학 박사로 현재 대구 경산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 어학센터 이향숙씨

이향숙 씨는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과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영어 교육학을 수료했다. 평소 영어 교육인의 모임 등을 통해 우리 학교 어학센터의 Siddiqui, Dewberry 교수와의 친분이 두터워서 학교 어학센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 하는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어학센터와 높은 수준의 학생들에 대해 매우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어학센터에 자리가 생겨, 근무를 결정했다.

이향숙 씨가 어학센터에서 맡은 직무는 센터운영의 전반적인 행정지원과 수업보조 등의 활동이다. 학생들에 대한 느낌과 당부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학센터에서의 전적인 영어 의사소통에 대해 너무 부담감을 가져서 어학센터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아쉬움이 느껴진다고 했다. 생활 영어 기회를 높이기 위한 어학센터의 정책이었지만, 좀 더 빈번한 학생들의 참여를 위해, 이향숙씨는 상황에 맞추어 영어와 국어를 모두 적절히 사용하여, 학생들의 부담을 덜고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한다. 영문으로만 오던 GLI 이메일등에 국어 번역 내용이 첨부되어 오는 등의 변화된 모습도 이향숙씨의 이런 생각에서였다.

이향숙씨는 어학센터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획, 실행하는데,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를 이용해주길 당부한다. 특히 입학 때 영어 인터뷰를 통해 등급을 받지 않은 2년차 이상의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예약을 통해 자신의 영어 수준을 체크해서 수준에 따른 훈련 방향 등도 제시해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랬다. F

글/최혜진 기자

김영걸 교수의 정보시스템관리 연구실

김 주 희
경영공학전공 석사과정

정보시스템관리 연구실(MOFIS: Management Of Information System Lab.)은 기업의 데이터 및 프로세스 모델링과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개발, 정보기술을 활용한 BPR 등 조직의 정보기술 요구를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하여 왔다. 최근 2-3년 전부터는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분야인 지식경영에 관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실질적 변화의 도구로서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제안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실과 연계되지 못하는 추상적인 연구보다는 항상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IT의 활용이 연구실의 연구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MOFIS 연구실을 책임지고 있는 김영걸 교수는 1990년 University of Minnesota에서 경영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간 Pittsburgh University 경영대학원의 조교수로 재직한 후 귀국하여 1993년 3월부터 현재까지 KAIST 교수로 재직중이며, 현재 테크노경영대학원 경영정보전공(MIS MBA)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관심의 영역 또한 다양하여 데이터 및 프로세스 모델링 뿐 아니라 지식경영, 마케팅 정보 관리 등에 관해서도 활발한 연구 활동 및 수업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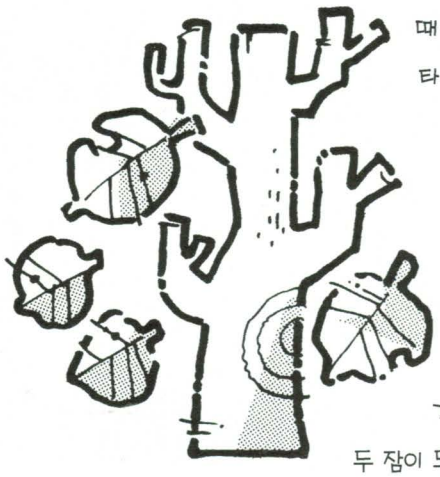
1993년 3월에 처음 문을 연 이후로 만 7년을 훌쩍 넘긴 MOFIS는 그 동안 6명의 박사와 18명의 석사, 11명의 MBA를 배출하였다. 홈페이지(http://mofis.kaist.ac.kr)에 나와있지만 짧은 역사에도 불구, 국내외 굴지의 대학과 기업들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고, 이미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MOFIS는 졸업 이후의 행사가 더욱 즐거운 연구실이다.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연구실 Homecoming day 로서 교수님 농장에서 졸업생 및 재학생이 함께 화합을 다진다. eMofis 세미나는 계절마다 졸업생들이 자체적으로 여는 세미나로 재학생이 함께 참여, 업무 경험과 연구 경험의 연계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이다. 1년을 평가하고 계획하는 송년회도 물론 빼놓을 수 없는 행사이다.

현재 재학생은 박사 과정 10명, 석사 과정 4명으로 모두 14명이 있는데,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하여 현재 지식경영, ERP, 고객관계관리, e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재학생들은 매주 열리는 세미나와 교수님과의 개별 면담을 통해 연구를 진척시키고 산행, 래프팅, 스키 등 다양한 행사로 화합을 다진다. 진지하면서도 즐거운 MOFIS는 합리적인 사고와 다양한 것에 대한 수용성, 또한 그 안에서의 전문성을 특징으로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늘 새롭게 성장하고자 하는 젊은 곳이다. Ⓕ

샘터마을 이야기

흔히 노인성 치매라 불리는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 있다. 행주대교 검문소 앞 동네 근교인 경기도 고양시 행주외동 260-3번지에 위치한 "샘터마을"이 그곳이다. 선호재, 정숙자 원장 부부가 처음 이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11년 전, 뇌출혈로 인해 병석에 누운 친정 어머니의 치매 치료가 계기가 되었다. 그 후, 이들의 고향이기도 한 이 곳에 10년 전 본격적인 치매 노인들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공간을 마련, 신문과 잡지, 각 교계신문, '이것이 인생이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으로 소개되어 각처의 치매환자가 찾아오게 되었고 현재 60여 명의 치매 노인들을 자원 봉사자들과 함께 돌보고 있다.

샘터마을의 하루는 새벽 5시 노인들의 목욕으로 시작된다. 16명의 봉사자들은 간밤 노인들의 대변이며 소변을 치우고, 기저귀를 갈고, 깨끗이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힌다. 노인들은 혼자서는 서지도 앉지도 못하며, 화장실을 찾아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타인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새벽 5시에 시작되는 샘터마을의 하루는 노인들의 마지막 기저귀를 갈고, 모두 잠이 드는 9시에 끝난다.



"한 생명을 우주보다 귀하게 여기며 지내는 하루하루가 모두 감사할 뿐"이라는 정원장은 경제적인 후원과 함께 거동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목욕과 식사를 돌볼 수 있는 자원 봉사자의 손길 또한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다.

선호재 목사는 곧 겨울이 되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이 더욱 걱정된다고 한다. 경제적인 도움 외에도 올 가을 한 번쯤 시간을 내어 그분들을 찾아 뵙는다면 그분들이 훈훈한 겨울을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글/김은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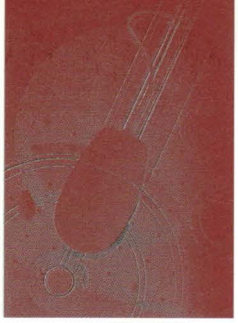
여·러·분·들·의·후·원·을·기·다·립·니·다

■ 샘터마을

Tel : (031) **974-8234/6** Fax : (031) **978-8236**

■ 송금구좌

예금주: 선 호 재		예금주: 정 숙 자	
국민은행	243-21-0112-731	우 체 국	101949-06-002776
한빛은행	250-030066-02-001	조흥은행	917-06-051547
농 협	217014-52-111394	한빛은행	369-07-025740
축 협	177-73-00818-717	주택은행	517102-96-120654
외환은행	345-18-08610-5	기업은행	290-013891-03-014
제일은행	638-10-007736	한미은행	154-21-100005620
신한은행	655-02-021049		



비학위과정 근황

AIM(최고정보경영자과정)

■ 12기 수료식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제 12기 수료식이 7월 12일에 있었다. 이번 수료식에는 최덕인 KAIST 원장, 김성회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장 및 AIM 총동창회 회장인 조해형 ㈜나라기획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축하의 뜻을 전하였다. 또, 12기 졸업생에 대한 시상식에서 최우수논문상은 세방기업㈜의 봉병옥 이사가 수상하였고 ㈜한독약품의 이환무 상무와 K1 VENTURES㈜의 송호상 대표이사는 우수논문상과 우수실습상을 동시에 수상하였다.

■ 13기 입학식 및 워크샵

제 13기 입학식이 8월 30일에 있었다. 이번 입학식에서 동기회장으로 지앤지네트웍스의 강승수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총무는 ㈜핸디소프트의 김정근 이사가 맡게 되었다. 그리고 입학식 이틀 뒤인 9월 1일과 2일에 거쳐 대전 유성에서 13기를 위한 워크샵이 있었는데, 이번 워크샵에는 KAIST 부원장인 남수우교수의 KAIST의 미래에 대한 특강이 있었다.

■ 제 7차 정보기술 업그레이드 교육

지난 7월 14일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졸업생에 대한 제 7차 정보기술 업그레이드 교육이 있었다. 졸업생에 대한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에서는 EC의 최신동향에 대한 특강, 전자상거래 실습, 지식자산보고서에 대한 강의 등이 이루어졌다.

AVM(최고벤쳐경영자과정)

■ 5기 입학식 및 워크샵

최고벤처경영자과정 제 5기 입학식이 8월 25일에 있었고 9월 1일과 2일에는 호텔롯데 대덕에서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방문, 인터넷전자상거래 기술과 특허에 대한 강의와 국내 벤처 현황 및 지원책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e비즈니스 공기업과정

지난 8월 16일에서 9월 19일까지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는 공기업 임원을 대상으로한 e비즈니스교육이 있었다. 이번 e비즈니스 공기업과정은 디지탈 경제환경 하에서 공기업의 경영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임원급 경영자 수준의 e비즈니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획예산처의 지원하에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이 개설한 것이다.

KAIST-신한은행 금융 단기과정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금융공학연구센터에서는 신한은행 지점장 및 기업금융역 30명을 대상으로 금융 단기과정을 개설하여 9월 19일 입학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9월 19일부터 12월 12일까지 3개월동안 매주 2회씩 진행된다.

글/정영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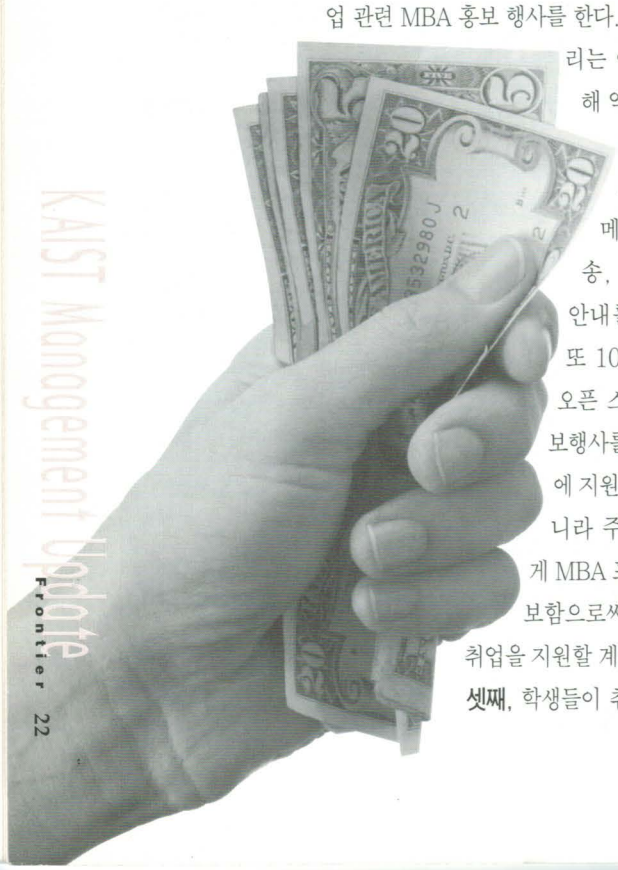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취업지원

취업지원실은 계속 늘어가는 학생들의 취업지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다 새로운 기획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행사와 서비스를 개발하여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

테크노경영대학원의 취업지원 업무는 한주호, 염주은, 김미영씨가 업무를 담당하며 한민희 부대학원장과 한인구교수가 주도하고 있다. 또 김영걸 교수와 문현경씨의 홍보팀도 MBA 홍보를 통해 취업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주요 취업지원 업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Resume Book을 발간한다. 대학원 전 학생의 이력서를 모아 국내 경영대학원으로는 최초로 Resume Book을 10월 초 출간한다. 단행본으로 발간되는 이 책은 외국계 컨설팅과 금융/투자 회사, 국내 대기업, 유망 벤처기업, 동문 기업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둘째, 주요 기업의 인사담당임원 100 명 정도를 초청하여 학생 취업 관련 MBA 홍보 행사를 한다. 10월 6일 열리는 이 행사를 위해 약 400개 기업을 선정하여 초청장과 이메일 메시지 발송, 그리고 전화 안내를 진행한다. 또 10월 21일에는 오픈 스쿨 MBA 홍보행사를 열어 MBA에 지원할 학생 뿐 아니라 주요 기업체에게 MBA 프로그램을 홍보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학생들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을 초청해 기업소개와 채용계획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설명회를 진행한다. 올해 골드만삭스와 삼성벤처투자, 앤더슨 컨설팅, 사이버다임이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맥킨지 컨설팅이 취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11월 11일에는 벤처기업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많은 벤처기업들이 학교에서 동시에 취업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넷째, 원내 인트라넷의 취업게시판에 구직정보를 제공하며, 인턴십과, 취업 세미나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의 취업정보의 장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홈페이지내에 취업게시판 기능을 확장하여 외부기업에서도 취업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하였고, 앞으로 취업정보 홈페이지를 더욱 보완하여 취업뉴스나 채용공고, 개인이력서 데이터베이스 등을 기업과 학생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Global Leadership Institute와 협조하여 외국계 회사 및 컨설팅 회사에 대한 취업지원을 위해 영어이력서 작성 워크샵(10.13(금)) 및 모의 인터뷰 워크샵(10.21(토))을 실시한다.

여섯째, 졸업생의 취업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이번 8월에 졸업한 MBA 학생들의 취업현황을 보면 주택은행, 대우정보시스템 등 기존 회사로 복귀한 사람이 2명, 앤더슨 컨설팅, 한국신용정보, IBM 등 국내외 유수 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11명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명은 창업했거나 준비 중이라 한다. 비록 소수 졸업생에 대한 취업 결과이긴 하나 만족스러운 취업성과로 평가된다.

취업지원실은 계속 늘어가는 학생들의 취업지원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다 새로운 기획으로 다양한 취업지원 행사와 서비스를 개발 추진중이며, 앞으로도 많은 활동이 기대된다. F

이성준 기자

- Resume Book
- **교육인사담당 임원 간담회**(10월 6일(금))
- **MBA공개강좌 및 open school**(10월 21일(토))
- **취업게시판- 취업설명회**(11월 11일(토))
- **GLI 워크샵- 졸업생의 취업현황 등등....**

2001학년도

KAIST-MBA로 유학오십시오!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KAIST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은
범세계적인 시야를 가지고 21세기를 이끌어갈 '기술을 아는 경영인, 경영을 아는 기술인'을 양성하는
국제 수준의 경영대학원입니다. 본 대학원의 MBA과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전공 및 학위

- MBA(경영학석사) 과정: 총 200명 내외 (현 재학생규모: 300명)
  - General MBA Program: 테크노경영전공 (Techno-MBA)
    기술 · 생산경영, 마케팅, 벤처경영,
    재무, 정보통신, e비즈니스 집중분야(6개)
  - Special MBA Program: 경영정보전공 (MIS-MBA)
    통신경영/정책전공 (Telecom-MBA)
    금융공학전공 (FE-MBA)
    환경경영/정책전공 (Green-MBA)

2001학년도 입학전형(무시험) 내용 및 일정

일 정	내 용
2000. 11. 6(월) - 11.18(토)	원서교부
2000. 11.20(월) - 11.23(목)	원서접수
2000. 11.28(화)	TOEFL(ITP)
2000. 12. 11(월)	제1차합격자 발표
2000. 12.13(수) - 12.15(금)	면접시험
2000. 12.21(목)	최종합격자 발표

- 입학시험성적 우수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으로부터 우대조건으로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체에서 교육경비를 부담하는 학생은 해당기업의 입학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제3회 MBA 공개강좌 및 Open School

- 일 시 : 2000. 10. 21(토), 14:00
- 장 소 : KAIST 서울캠퍼스 SUPEX경영관 5층 최종현홀
  - ▶MBA 공개강좌
    ① 강의 I 주제: e-Business 제2의 물결
    강사: 박성주 교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② 강의 II 주제: 테크노경영대학원에서 꿈꿔온 아이러브스쿨
    강사: 김영삼
    (아이러브스쿨 대표이사,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박사과정)
  - ▶Open School: 16: 10 ~ 입학관련 질의응답 및 대화의 시간
- 참가비 및 교재비: 없음
- 접수문의: jhhan@kgsm.kaist.ac.kr

테크노경영대학원(서울 홍릉캠퍼스) 홈페이지

(http://kgsmweb.kaist.ac.kr)

■문의처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학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3 130-012
☎ 02-958-3214,3216 FAX. 02-958-3220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Management